

보도 일시	2022. 12. 16.(금) 09:00	배포 일시	2022. 12. 16.(금)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유혜원 (044-203-2832)

한국과 일본, 힘 합쳐 관광교류 회복 앞당긴다

- 12. 16.~17. 부산에서 '제36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개최,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일본 국토교통성(대신 사이트 데쓰오)은 12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부산에서 '제36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한일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로 열리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지속 개최하며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2년 3개월 만에 양국의 수도를 연결하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이 열리고 10월에는 양방향 무사증 관광이 복원, 11월에는 부산-후쿠오카 여객 노선이 재개되어 양국 여행길이 정상화되어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자가 직접 만나 관광교류 조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일본 관광 관계자 50명 부산 찾아, 12. 16. '한일 관광교류의 밤', 12. 17. 본회의 진행

먼저 12월 16일(금)에는 양국 관광교류 재개를 축하하는 '한일 관광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17일(토)에는 '제36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본회의를 이어간다. 이번 행사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을 대표로 정부와 관광공사, 관광업계, 학계, 지자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호시노 미쓰아키 국제관광부장을 대표로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시무라 타다시 이사장과 전국여행업협회(ANTA) 곤도 코지 부회장, 여행사 '잘팍'의 니시오 다다오 회장 등 여행·항공·교통 분야를 포함해 참가자 약 50명이 부산을 찾는다. 협의회에서는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광교류 구축 방안, ▲ 한일 지방 관광의 복원 및 교류 활성화, ▲ 미래세대(청소년·청년)의 교류 활성화, ▲ 관광산업 혁신기반 강화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 공유, 지방 관광 복원과 활성화 위한 협력 모색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12월 12일(월)에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소개한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가 한국 문화(케이컬처)를 중심으로 관광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운 중장기 관광정책이다. 그중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도쿄 등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케이-관광 로드쇼’ 계획을 일본 여행업계에 알려 일본인 방한 관광 본격 유치를 위한 협력을 촉구한다. 일본 관광청과 양국 지자체, 관광공사(KTO/JNTO), 여행업협회(KATA/JATA)에서도 관광 재개 대응 현황과 함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조 강연에서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양국의 관광교류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경남대학교 고계성 교수, 숙박 서비스 플랫폼 ‘미스터멘션’의 정성준 대표, 일본 관광기업 ‘이센’의 이구치 도모히로 대표이사, ‘밸류 매니지먼트’의 마쓰오 료스케 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이전 양국 여행객은 상호 외국인 관광 시장에서 약 18% 정도를 차지했고, 양국 관광교류 재개는 코로나19로 긴 침체를 겪은 국제관광 시장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2023년은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국문화(케이컬처)를 매개로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교류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6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세부 계획(안)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2. 12. 16.(금) ~ 12. 17.(토) / 부산 롯데호텔
- (참가자) 약 120명(한국 70명, 일본 50명)
 - (韓) 문체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KTO),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
 - (日) 관광청, 지자체,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여행업협회(JATA) 등

□ **본회의 세부내용 [12. 17.]**

* 언론사 취재 가능

시간	내용	비고
09:00~09:10 (10)		개회
09:10~09:20 (10)	정부대표 인사	· (韓)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 (日) 관광청 호시노 미쓰아키 국제관광부장
9:20		프레스 퇴실
09:20~09:40 (20)	정책 발표	· (韓) 문체부 강지은 국제관광과장 · (日) 관광청 기다 스스무 참사관
09:40~10:00 (20)	지자체 발표	· (韓) 부산시 손태욱 관광진흥과장 · (日) 가가와현 사토 교코 교류추진부 부장
10:00~10:40 (40)	기관 발표 및 의견교환	1.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 2. 일본정부관광국 니나가와 아키라 이사 3.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4. 일본여행업협회 니시오 다다오 이사
10:40~11:00 (20)		휴식 및 프레스 재입장
11:00~11:50 (50)	기조 강연 및 질의응답	1. (韓) 경남대 고계성 관광학부 교수 : 한일 관광 재개에 따른 지방교류 활성화 방안 2. (日) 이센 이구치 도모히로 대표이사 : 지역의 독자적 스토리를 주축으로 한 관광 진흥 및 DX를 활용한 지역 스토리와 관광산업의 융합 3. (韓) 미스터멘션 정성준 대표 : 지방 관광 활성화 - 인구소멸지역 활성화 4. (日) 벨류매니지먼트 마쓰오 료스케 부장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마을 만들기
11:50~12:00 (10)		합의문 서명,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12:00		폐회